공부가 되고 상식이 되는 시리즈 8

어린이를 위한 동물 복지 이야기

동화로 보는 동물학대와 유기,
대규모 축산농장, 동물실험, 동물원에 대한
불편한 진실

한화주 지음, 박선하 그림
팜파스 펴냄 | 166쪽 | 값 12,000원 |초등 중학년

책소개

"'산업, 소비, 즐길 거리, 먹거리, 입을 거리'가 된 동물들!"

이 책은 인간 사회를 위해 희생되는 동물의 삶과, 산업이 되어 버린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동물들의 희생이 과연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질문하고, 동물의 행복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보여 준답니다. 우리 세상에는 다양한 종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해줍니다. 동물의 행복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다양한 나라에서 시도되는 동물 복지에 대한 실천을 보고 지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답니다.

독후활동 주제망

인간을 위해 이용되는
동물에 삶에 대한 이야기

- 표지, 차례, 제목으로 이야기에 대해 상상하기
- 책을 읽으며 미세먼지와 인물 이야기 살피기
  반려동물, 동물원, 대규모 축산농장 등에 대한 경험 나누기
- 동물과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공정하고 윤리적인 선택 살피기
  '동물복지를 위해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책 읽기전에 해보세요!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의 앞표지와 차례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

1.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인가요? 좋아하는 동물을 이야기해보고,
그 동물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야 가장 행복할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2. 표지 그림에 등장하는 동물들(개, 소, 돼지, 너구리, 닭, 고양이)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품이나 물건, 음식 등이 있나요? 있다면 그것에 대해 적어 보아요.
앞서 이야기한 좋아하는 동물의 삶과, 제품이 된 동물이 같은 느낌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3. 이 책의 차례를 나란히 써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됩니다. 이 차례를 살펴볼 때,
이 책에서는 동물복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나요?
가장 관심 있는 이야기 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골라보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아요.

이야기 하나. 토리는 장난감이 아니야!
- 동물의 감정과 소통, 행복한 생활에 대한 동물 복지 이야기
토리야, 자꾸 울면 안 돼! / 토리는 장난감이 아니야! / 토리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 동물도 감정이 있어요!

이야기 둘. 꼬꼬 마을에 큰돈을 벌어다 주는 축산 공장이 생겼대!
-사람에게 이용되는 동물과 대규모 축산 농장으로 보는 동물 복지 이야기
깜장이가 또 사라졌다!/꼬꼬 마을이 부자가 되는 법/우주 최고 달걀을 만드는 꼬꼬 마을의 선택
● 사람에게 이용되는 동물들의 슬픈 이야기

이야기 셋. 유기견 다롱 할아버지와 들개 막내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사람에게 사랑받다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삶과 동물 복지 이야기
들개 막내가 도시 마을로 나간 날/ 다롱 할아버지는 과연 주인을 만났을까?
● 가족이라고 불렀던 동물을 왜 버릴까?

이야기 넷. 우리가 즐거운 만큼 코끼리도 즐거울까?
-사람에게 즐길 거리로 이용되는 동물에 대한 동물 복지 이야기
다바의 이야기 / 쿠푸의 이야기 / 뚜뚜와 따따의 이야기 / 코끼리들의 이야기
● 우리가 즐거운 만큼 동물들도 즐거울까?

● 책을 읽으면서 질문해보고 다음을 적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 동물도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준이는 토리 앞에 손바닥을 쑥 내밀었어요.
"손! 손!"
그러자 토리가 한쪽 앞발을 준이의 손바닥 위에 톡 올려놓았지요.
"아하하하. 봤지? 봤지"
준이는 토리를 끌어안고 쓰다듬었어요. 엄마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준이는 신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방학 동안 집에 혼자 있어도 하나도 안 심심해. 토리를 갖고 놀면 진짜 재미있거든."
그 순간, 엄마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어요.

1. 엄마의 얼굴에는 왜 미소가 사라졌을까요?
준이는 강아지 토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것 같나요?
준이의 말을 만일 토리가 알아들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2. 우리는 가족처럼 집에서 함께 지내며 키우는 동물을 '애완 동물'이라는 말과 '반려 동물'이라는 말로 부른답니다. 이 두 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각각 어떤 의미를 지녔을지 생각해 보고 어떤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해봅시다.

3. 동물에게 감정이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렇게 느낀 이유와 그 경험에 대해 적어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 왜 동물을 대량으로 만들어내야 할까요?

"꿀꿀 마을 사람들이 무슨 수로 부자가 되었답니까?"
"닭을 키우는 우리나, 돼지를 키우는 그 사람들이나 사는 형편은 비슷하지 않았나요?"
풍풍 아저씨와 뺑코 아저씨가 차례로 물었어요.
"비슷했죠. 그런데 뭐라더라…… 공장식 축산인가 뭔가로 큰돈을 벌었대요."
"공장식 축산? 그게 뭔데요?"
뺑코 아저씨가 물었어요.
(중략)
"암. 그래서 내가 그런 짓은 못하겠다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아나? 돼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꼬리를 물어뜯으며 공격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꿀꿀 마을에서 공장식 축산을 할 때는
돼지 이빨을 뽑고, 꼬리를 잘랐대. 한데 고작 부리 끝을 조금 자르는 게 대수냐고 하더군. 허! 나 원 참."
뺑코 아저씨는 기가 막히는 듯 헛웃음을 웃었어요.
"게다가 밤에도 반드시 사육장 안의 불을 훤히 켜두라고 으름장을 놓더군.
그래야 닭이 밤에도 낮인 줄 알고 알을 또 낳는다나?
만약 닭들이 알을 낳는 게 신통치 않거든 열흘에서 보름 정도 불을 끄고, 모이도 주지 말고 굶기라지 뭔가.
그렇게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나면 다시 알을 잘 낳는다고……. 어휴."
뺑코 아저씨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뒷짐을 지고 돌아섰어요.

1. 꿀꿀 마을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는 데 공장식 축산 산업을 받아들였어요.
꿀꿀 마을에서 살던 돼지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변화된 돼지의 삶을 보는 꿀꿀 마을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만일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2. 공장식 축산 방법으로 돼지와 닭을 대량으로 키워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과연 옳은 변화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3. 우리가 흔히 쓰고, 먹는 제품 중에 공장식 축산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만일 그 제품의 가격이 좀 더 비싸지고 종류가 적어진다면 어떠할 것 같은가요?

4. '동물 복지 축산 농장' 제도는 동물의 습성대로 살게 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가축을 키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품이 더 많이 들고 가축을 더 많이 키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동물복지 농장의 제품은 더 비싸고 종류가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 제품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만일 그렇다면 그 제품을 이용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즐거움을 주기 위한 동물들을 생각하며

동물원에서 본 동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동물은 어떤 동물인가요?
그 동물이 원래 살던 곳은 어디이고 그곳과 동물원 안의 환경은
얼마나 다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동물에게 동물원은 어떤 공간으로 느껴질까요?

◎

◎

◎

● 즐거움을 주기 위한 동물들을 생각하며

이 책에서 정의하는 동물 복지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 복지'란 쉽게 말하면 '동물의 행복한 삶'이라는 뜻이야.
동물에게 행복한 삶이란 뭘까? 그건 동물이 타고난 습성대로 사는 거야.

동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나는 어떤 실천을 해볼 수 있을까요?

◎

◎

◎